

2026년 2/4분기 대구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 경기 동향

◆ 대구성서산업단지 2026년 2/4분기 경기현황 ◆

구 분	'26년 1/4분기	'26년 2/4분기	증감내용
가 동 률	74.00%	75.06%	1.06%p 증가
총생산액	4조 8,871억원	4조 9,944억원	1,072억원 증가
입주업체	3,701개	3,734개	33개 증가
근로자수	49,432명	49,646명	214명 증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Management Corporation for Daegu Seongseo Industrial Complex

2026년 2/4분기 경 기 동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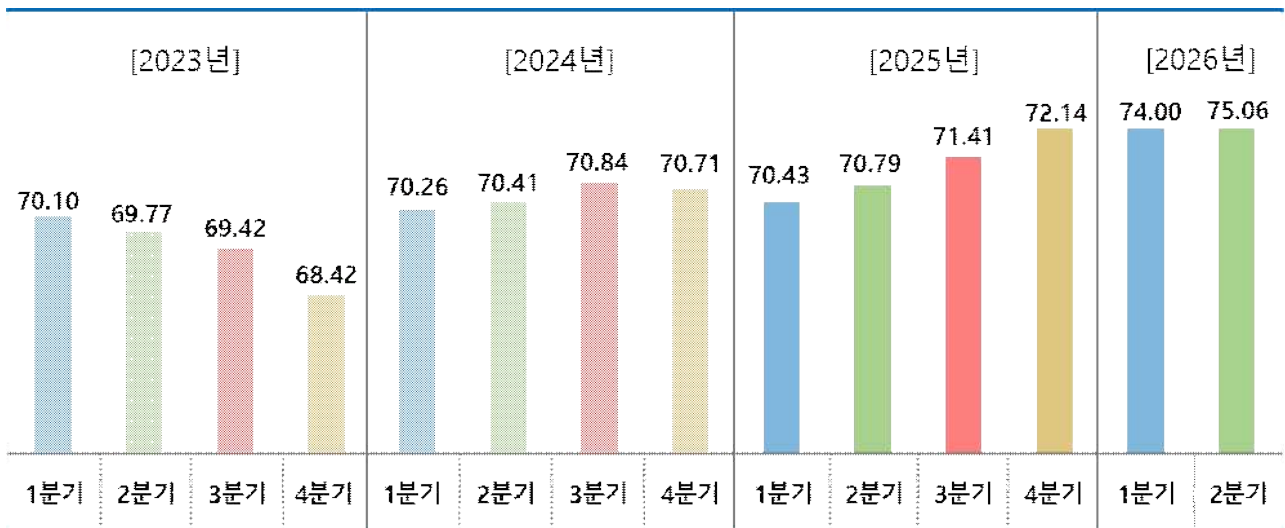
입주업체 공장 가동률 및 경기동향

● 2026년 2/4분기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 75.06%

- 전분기(74.00%) 대비 **1.06%p 증가**
- 전년도 동분기(70.79%) 대비 **4.27%p 증가**

[분기별 가동률 추이]

(단위 : %)



(단위 :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70.10	70.26	70.43	74.00
2분기	69.77	70.41	70.79	75.06
3분기	69.42	70.84	71.41	
4분기	68.42	70.71	72.14	

※ 95% 신뢰도 수준에서 $\pm 2.38\%p$ 표본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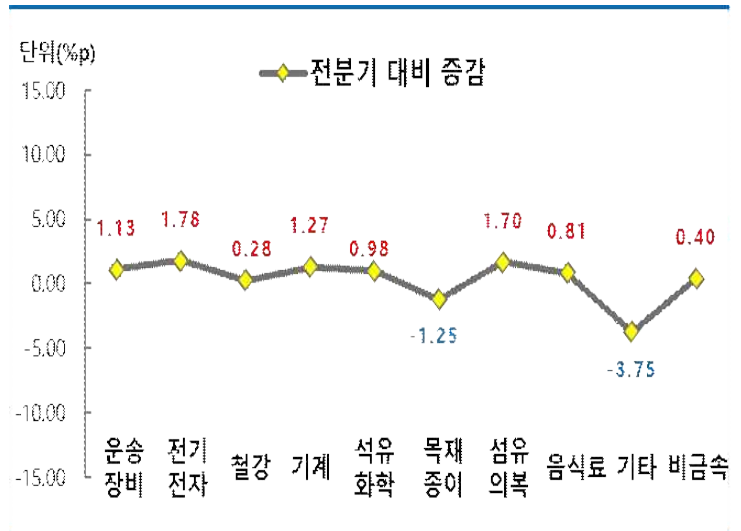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의 안정적인 흐름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생산실적과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 모두 개선됨. 운송장비, 전기전자, 기계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확대가 경기 회복을 견인하였으나, 일부 업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업종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남.
- 아울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및 물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의 경영 부담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개선세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분기 대비 업종별 가동률

[전분기 대비 업종별 가동률]

(단위 : %)

순위	업종	가동률(%)	전분기 대비
1	운송장비	80.82	▲1.13
2	전기전자	78.76	▲1.78
3	철강	77.83	▲0.28
4	기계	75.67	▲1.27
5	석유화학	75.30	▲0.98
6	목재종이	70.95	▼1.25
7	섬유의복	69.63	▲1.70
8	음식료	69.57	▲0.81
9	기타	61.25	▼3.75
10	비금속	54.00	▲0.40



- 2026년 2/4분기 업종별 가동률은 운송장비 업종이 80.82%로 지난 1/4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어 전기전자(78.76%), 철강(77.83%), 기계(75.67%), 석유화학(75.30%), 목재종이(70.95%), 섬유의복(69.63%), 음식료(69.57%), 기타(61.25%), 비금속(54.00%) 순으로 나타났음.
- 전분기 대비 전기전자(+1.78%p) 업종의 가동률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이어 섬유의복(+1.70%p), 운송장비(+1.13%p), 기계(+1.27%p),

석유화학(+0.98%p), 음식료(+0.81%p), 비금속(+0.40%p), 철강(+0.28%p)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타(-3.75%p) 업종의 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목재종이(-1.25%p) 업종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증감 사유를 조사한 결과, 상승 업종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은 신규 수주 증가와 해외 매출 확대로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섬유·의복 업종은 지난 분기 전쟁의 영향이 컸으나 이번 분기에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수주 감소가 지속되어 업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운송장비 업종은 신규 수주 확대와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감소 물량의 회복, 전분기 대비 영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기계 업종 역시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조사됨.
- 반면 하락 업종의 경우, 목재종이 업종은 선거 관련 인쇄물 수요 증가로 일부 업체의 실적이 소폭 개선된 사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주문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기타 업종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가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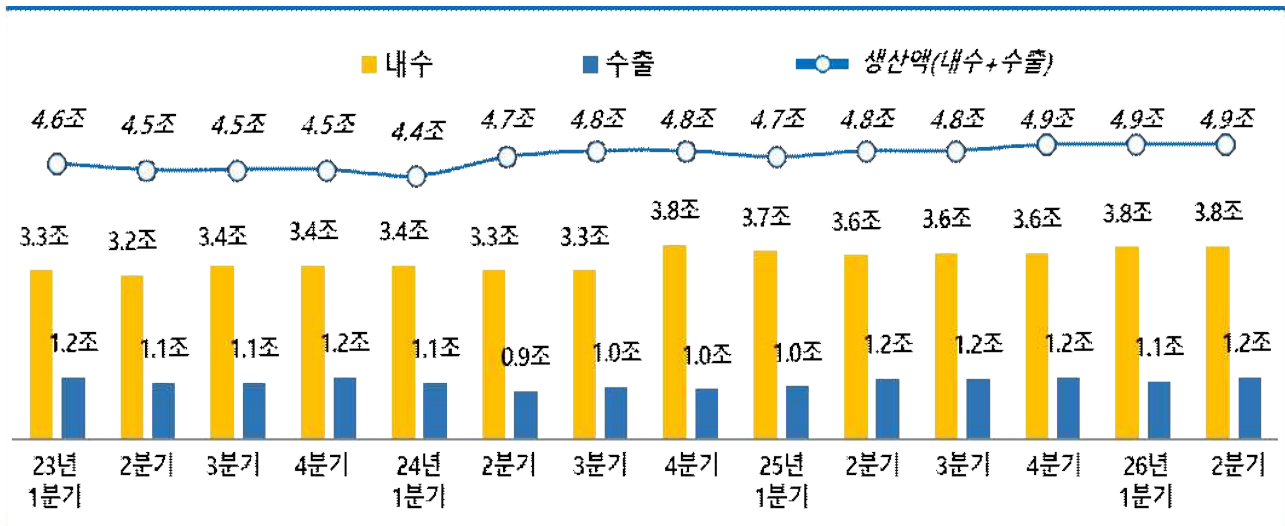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입주업체 및 근로자 현황

- 입주업체 수는 전분기 대비 **33개사 증가**한 3,734개사로 집계됨.
- 근로자 수는 전분기 대비 **214명 증가**한 49,646명으로 집계됨.

구 분	입 주 업 체 수 (개)			구 분	근 로 자 수 (명)		
	2026. 1/4	2026. 2/4	증감		2026. 1/4	2026. 2/4	증감
계	3,701	3,734	+33	계	49,432	49,646	+214

2026년 2/4분기 생산실적

[분기별 생산실적]



(단위 : 조)

- 2026년 2/4분기 생산실적은 전분기 대비 약1,072억원(2.19%) 증가한 4조 9,944억원을 기록함. 내수는 287억원(0.76%)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출은 760억원(6.70%) 증가하여 생산실적 개선을 주도함. 이는 성서산단 내 주요 중견기업들의 생산 확대와 신규 수주물량 대응, 수출 회복세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환산 매출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다만 수요 회복 정도와 경영여건에는 차이가 있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전분기 대비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1/4 분기	2026년 2/4 분기	증 감	비 고
생산액	4,887,171	4,994,412	+107,241	(+2.19%)
내 수	3,755,370	3,784,105	+28,735	(+0.76%)
수 출	1,134,968	1,210,978	+76,010	(+6.70%)

2026년 2/4분기 경기상황 설문조사 결과

< 전분기 대비 경기상황 >

구분	어려웠다	비슷했다	좋아졌다
2/4분기	47.50%	46.92%	5.58%
1/4분기	54.36%	40.87%	4.77%

- 2026년 2/4분기 경기상황은 전분기보다 ‘어려웠다’ 라는 응답이 47.50%로 전분기 대비 6.86%p 감소, 전분기보다 ‘좋아졌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5.58%로 전분기 대비 0.81%p 증가함.

2026년 2/4분기 기업경영 애로사항

< 기업경영 애로사항 >

구분	수주물량 감소	인건비 상승	원자재 조달	운영자금 (대출금리)	인력 부족	시설노후	근로시간 단축	기타 (무응답)	R&D 투자	기술 부족
2/4분기	26.38%	17.81%	17.08%	13.95%	10.17%	5.74%	4.07%	2.47%	1.38%	0.94%
1/4분기	26.69%	17.69%	19.86%	13.73%	8.30%	4.03%	4.34%	3.80%	0.93%	0.62%

※ 순위별 가중치(3순위까지)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 6(이하동일)

2026년 3/4분기 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

< 경 기 전 망 >

구분	어려울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2/4분기	48.74%	46.23%	5.03%
1/4분기	55.19%	37.76%	7.05%

- 2026년 3/4분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 ‘어려울 것 같다’ 는 응답이 48.74%로 전분기 대비 6.45%p 감소하였고 ‘좋아질 것 같다’ 는 5.03%로 전분기 대비 2.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6년 2/4분기 경기동향 및 결론

-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조달의 어려움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국제 통상환경 변화,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 경기 개선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2026년 2/4분기 대구성서산업단지 경기는 생산실적, 가동률, 입주업체 수,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하며 전분기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주요 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와 생산 확대가 전반적인 경기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종별 개선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